

민간 전문가 손잡고 미래 농식품 산업 선도

농진청, 본청서 푸드테크 분야 민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일, 본청에서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민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 방향을 모색했다.

푸드테크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보통신(I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조 원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1조 원으로 집계돼 향후 지속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기업 메디솔라, 디이프, 라피고, 수지스링크를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대학, 농촌진흥청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

는 푸드테크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성신여자대학교 이명숙 교수의 '정밀 영양 연구의 R&D 변화와 혁신' 주제 발표를 듣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분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맞춤형 식품 기반 기술과 국산 농식품을 활용한 대체 단백

질 생산기술,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등 민간 협력을 통해 고부가 미래형 농식품 산업 생태계 모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푸드테크는 미래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자 기업과 농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모형의 핵심 산업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푸드테크를 활용한 미래식품의 기술혁신으로 농식품 산업이 미래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종합식품회사 하림이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에서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및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맞손

하림, 전북경찰청·자경위와 협약 체결

종합식품회사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에서 최종문 전북경찰청장과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13개 기관과 기업은 전북지역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부 협약 내용은 △성·가정·학교폭력 및 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살인·강도 등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에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정호석 대표이사는 "범죄 피해자 분들의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사회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전북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피해자 가족

들을 돕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대응협의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동참한 (주)하림, 전북 지방변호사회, 대지인병원 등 10개 기업과 단체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공동협의체'에 합류했다. 앞으로 공동협의체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아동·노인 학대, 가정·학교 폭력 등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필요 분야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연계사업들을 함께 추진해갈 계획이다.

/약산=이재춘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금연 선도기관 지정' 현판식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금연 문화 선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내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2024년 금연선도기관에 지정되어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과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을 감소 등에 기여한 기업에 주어지는 금연선도 기관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금연 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전북 금연지원센터와 전주시 보건소 협업을 통해 금연클리닉을 6개월 동안 진행해 왔으며, 슬기로운 직장생활, 건강한 일터만들기 등 임직원의 건강 증진에 힘써 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강정구점장은 "직원들의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건강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건강하고 안전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T "올해 김장비용 조사결과 평년 보다 낮아"

20만6000원으로 평년 22만457원보다 6.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올해 김장철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20만6,747원으로 평년(22만457원) 대비 6.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배추 등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으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급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년과 비교했다.

김장 주재료 배추는 올해 유독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포진 관리에 힘입

어 작황이 호전됐다. 배추 도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 또한 지난 18일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내렸다.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8.9%, 8.4% 하락했고, 양파와 생강도 각각 21.0%, 14.5% 저렴했다. 새우젓 등 수산물도 내림세였으나, 생육기 이상기후로 무, 미나리, 쪽파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김장 채소 구입비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늘 등의 필수적인 양념 재료는 정부가 직접 구매해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공급 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김장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대 채소가 모두 김장재료"라며, "수급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 누리집(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주요 할인 행사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O만호기자

건협 전북자치도회, '2024 스마트건설 엑스포' 참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건설 엑스포'에 회원사 임직원 40여명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건설 엑스포는 '스마트 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건설동행위원회)의 출범식이 진행되어 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종합행사로 진행되었다.

소재철 회장은 "혁신적인 기술의 발



견과 함께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했지만, 그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출범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

의체를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형성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수질환경보전회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이광희)는 지난 19일 농업용수 수질오염 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 및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

수질환경보전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 전문가, 환경단체, 농업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정화행사, 수질관리 캠페인 등을 비롯한 수질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정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요구 및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

하여 저수지의 수질 관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이행실적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치고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직원 및 완주군청직원들은 환경정화의 일환으로 화정저수지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광희 지사장은 "공사는 수질 조사 활동, 녹조 예방활동, 수질오염 감시 활동 및 조류예찰 등을 통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